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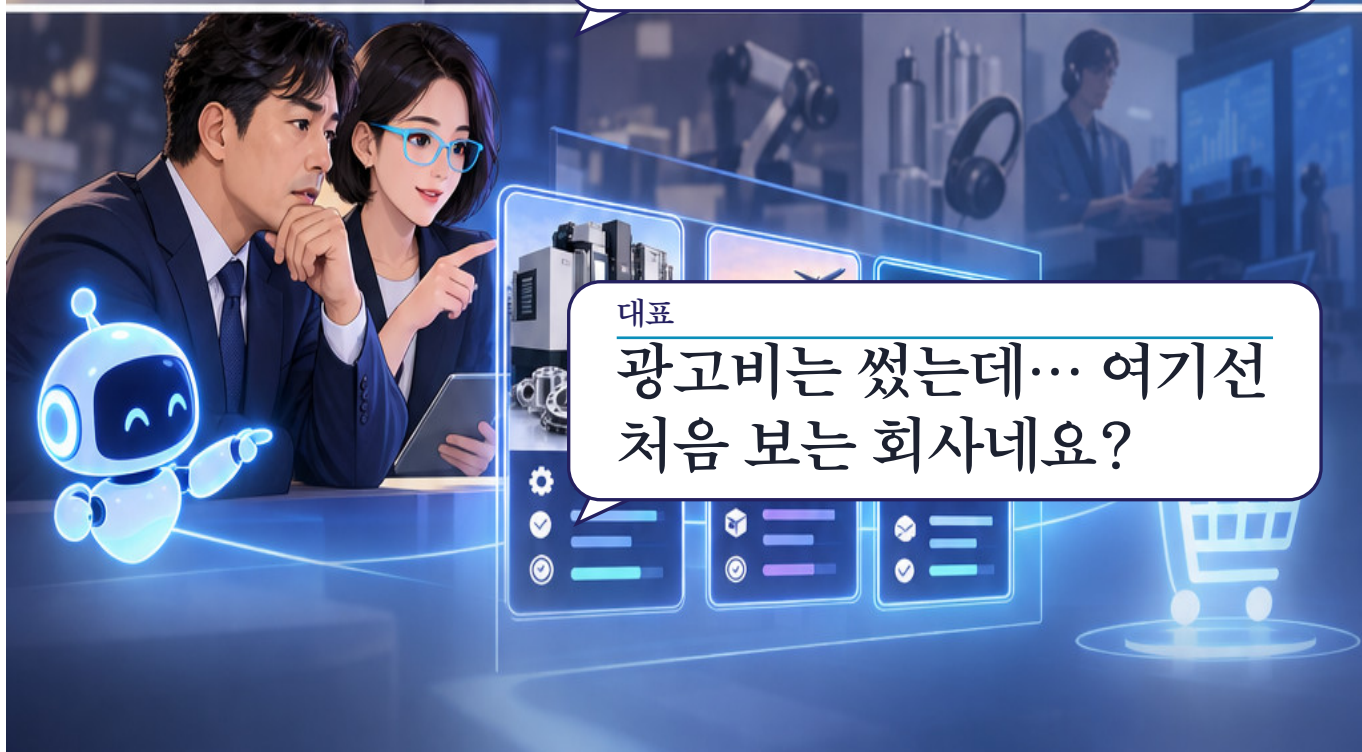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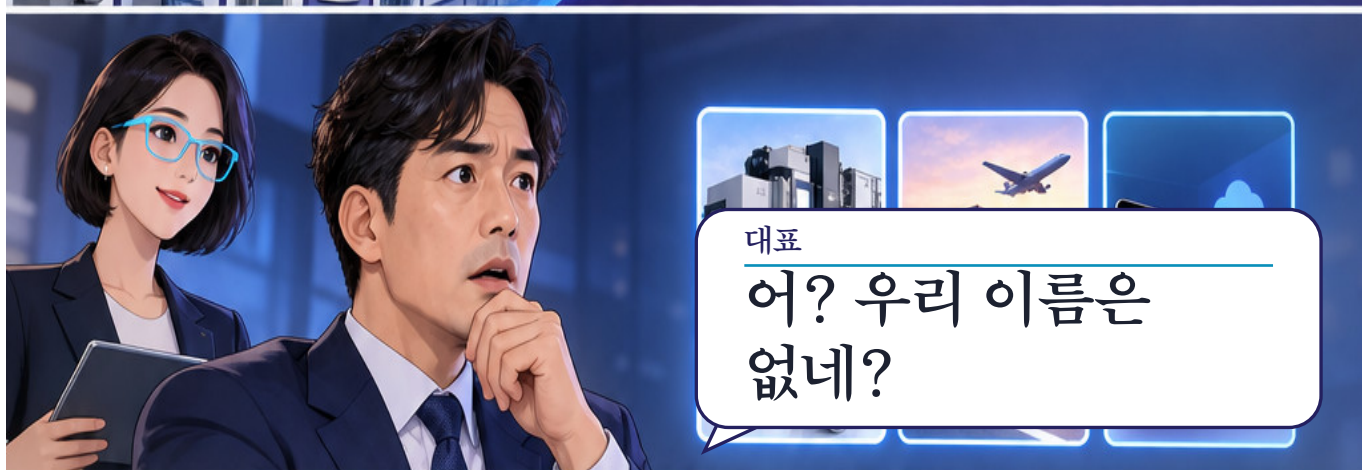
01

검색하면 잘 나오는데?



02

그런데... 우리는 왜 없어?



03

AI에게도 알려줘야죠

대표

AI야, 우리도 좀
추천해주면 안 되니?

AI버스터

부탁만으론 어렵죠. 잘하는
일을 보여줘야 해요.

AI버스터

뭘 잘하는지, 해본 적은
있는지, 어디서 확인할 수
있는지요.

대표

말로만 “잘합니다!” 해선
안 되겠네요.

AI버스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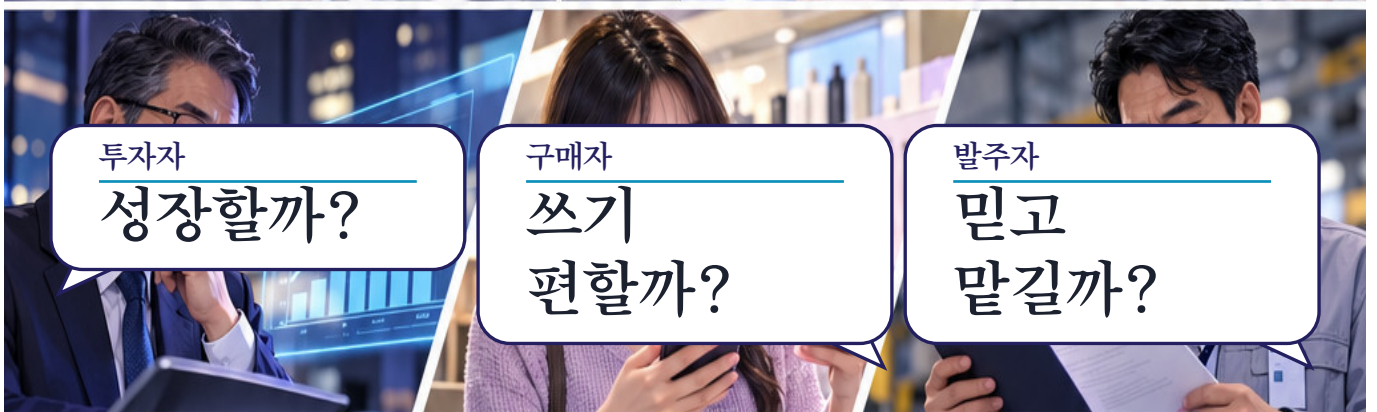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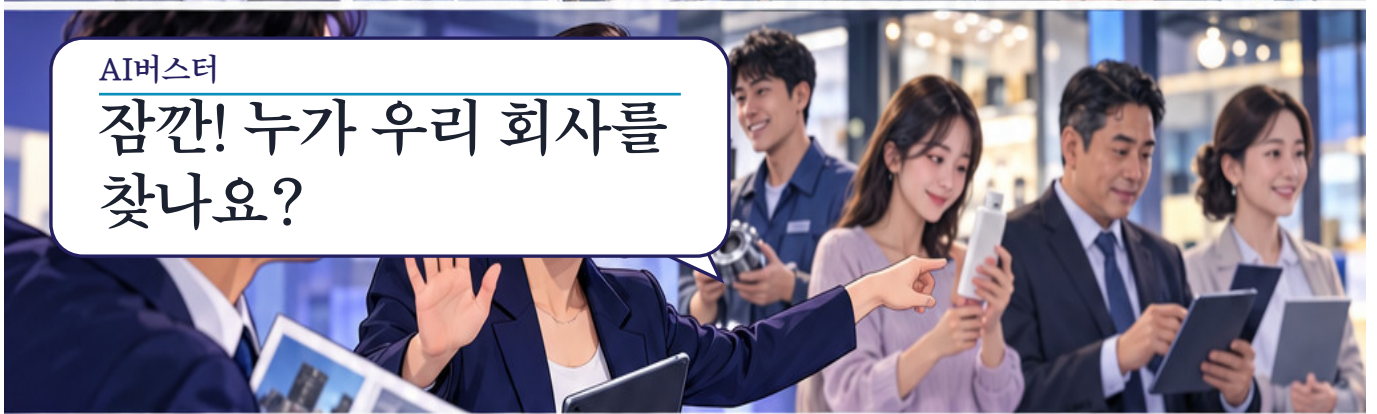
AI가 우리를 잘 알고
추천하도록 돕는 일. 그게
GEO예요.

효과는 어떻게 알아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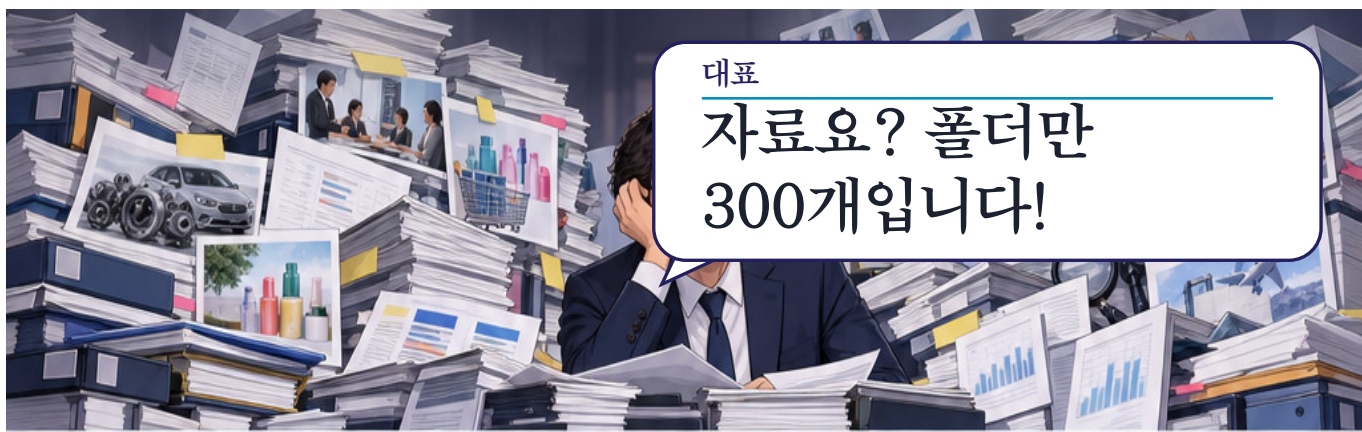
05

누가 우리를 찾을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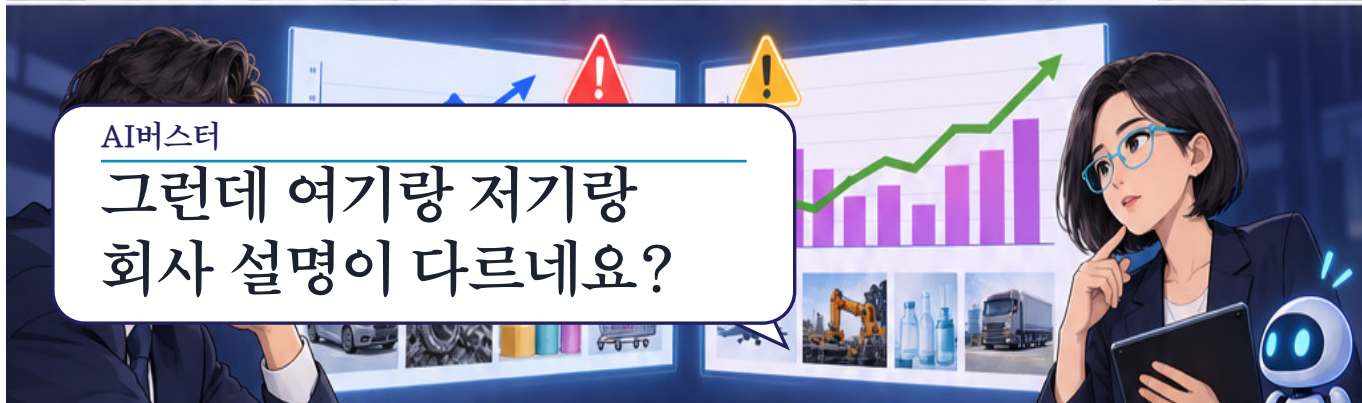
06

자료는 많은데... 어디 있더라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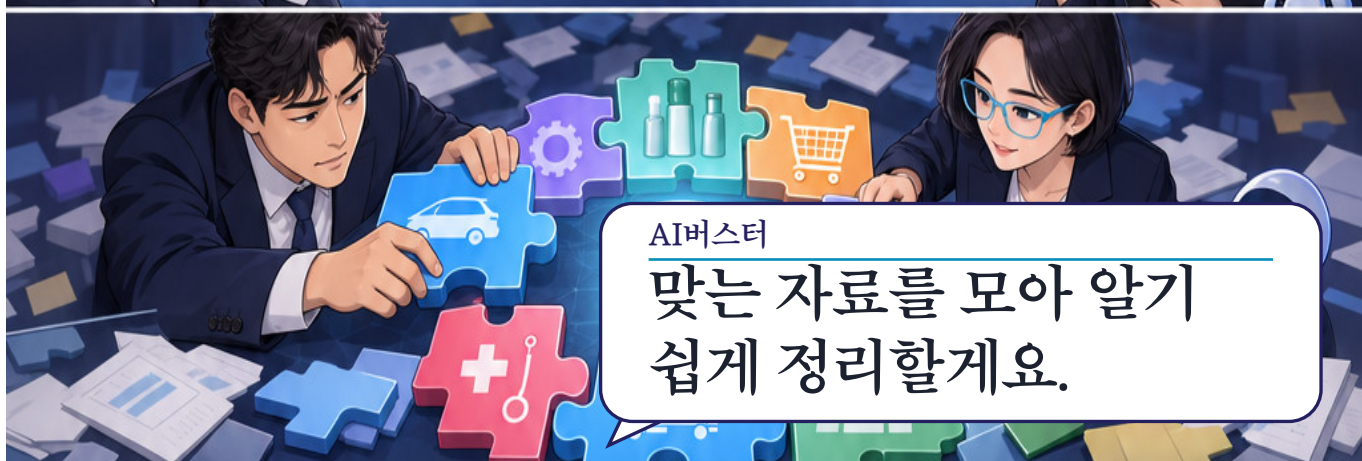
대표

자료요? 폴더만
300개입니다!



AI버스터

그런데 여기랑 저기랑
회사 설명이 다르네요?



AI버스터

맞는 자료를 모아 알기
쉽게 정리할게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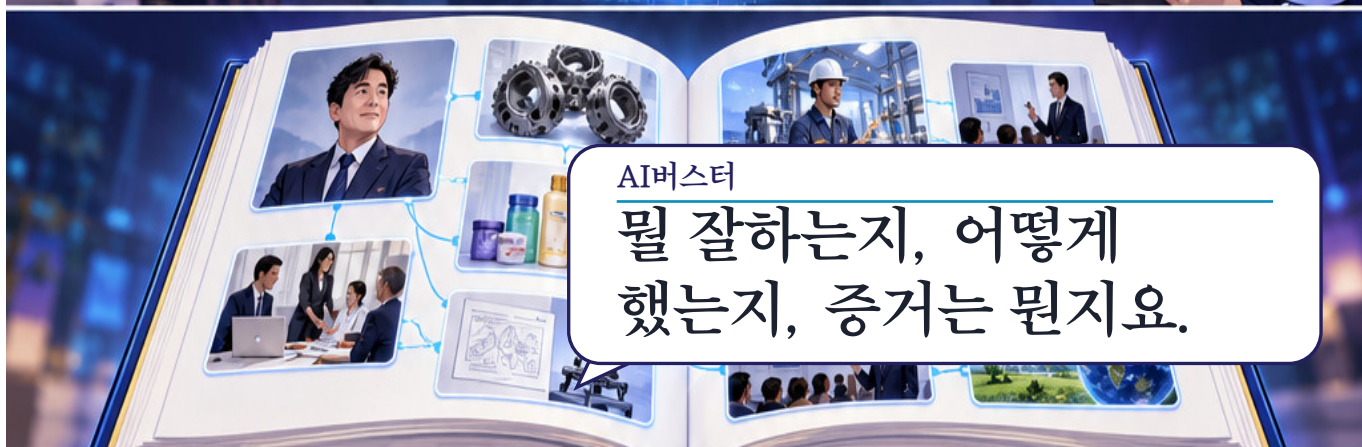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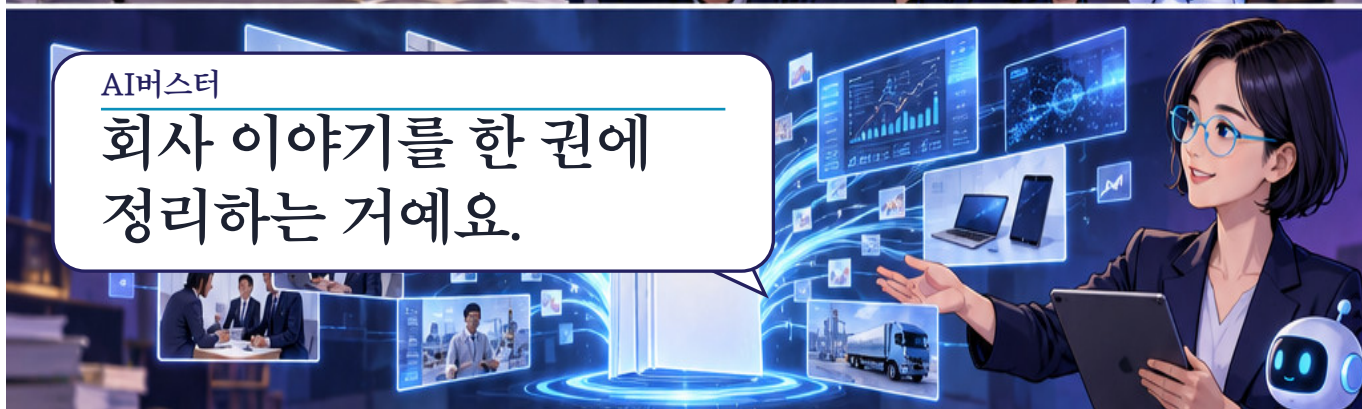
AI버스터

없는 자료는 고객에게
묻고 조사해서 채워요.



대표

아, 우리를 추천할
이유부터 준비하는군요.



대표

책 나왔으니 이제
꽂아두면 되죠?

AI버스터

아직요! 필요한 내용을
꺼내 써야죠.

AI버스터

고객 질문엔 쉬운 답변을,
홈페이지엔 정확한 소개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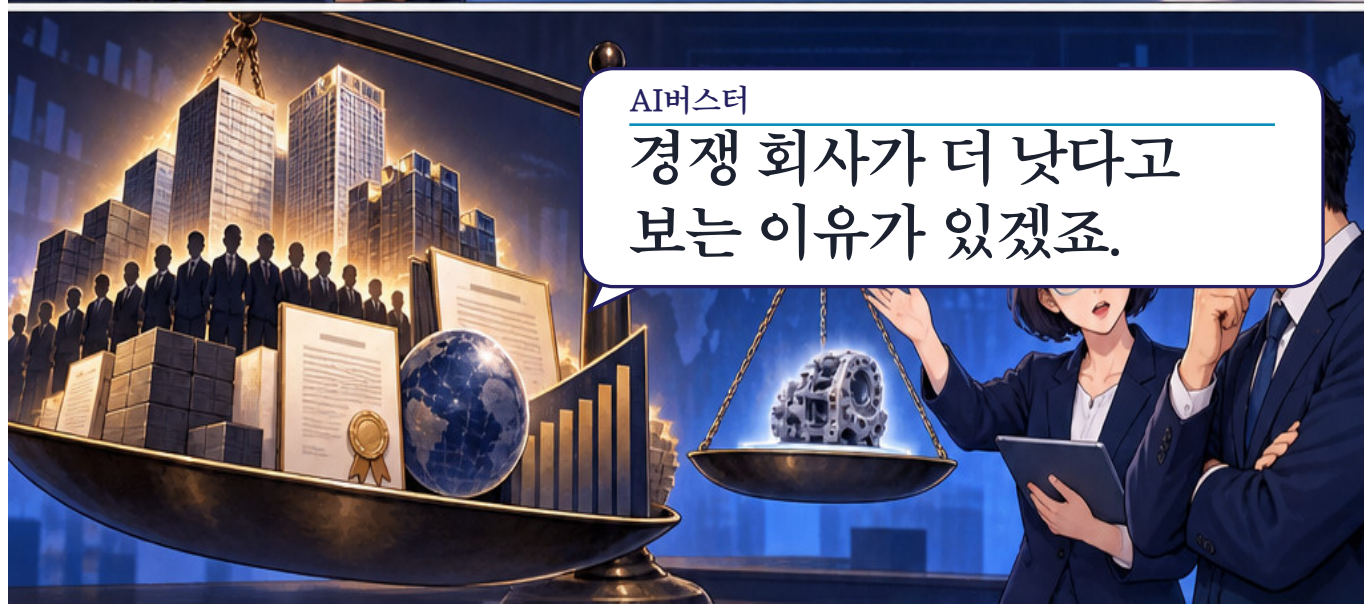
AI버스터

조사 결과는 보고서로, 새
소식은 기사로 알리고요.

대표

어디서 봐도 우리 회사가
제대로 설명되겠네요.

아는데 왜 안 골라주지?



대표

그럼 이제 뭘 해야
하죠?

AI버스터

잘하는데 안 알려졌다면,
증거를 제대로 보여주고요.

AI버스터

실제로 부족한 건 제품과
서비스를 고쳐야죠.

AI버스터

큰 회사가 못 챙기는 일을
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.

대표

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
일을 찾는 거군요!

대표

“우리 최고!”라고 이름만 붙이면 안 되고요?

AI버스터

간판을 바꾼다고 실력이 생기진 않죠. 하하.

AI버스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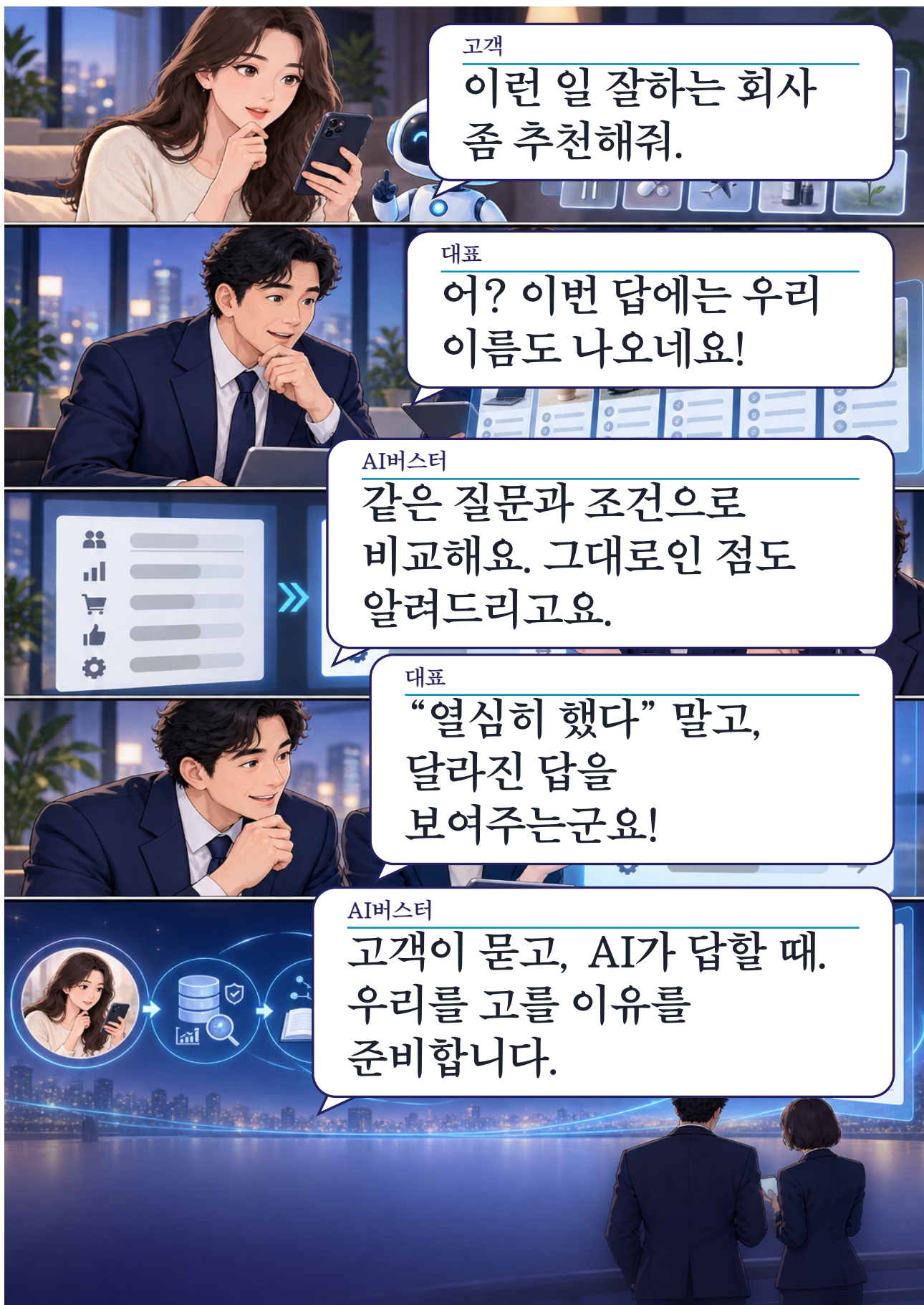
예를 들어, 큰 회사가 놓치는 급한 소량 주문을 잘한다면요?

AI버스터

“급하게 조금 맡길 곳”을 찾는 고객부터 시작해요.

대표

거기서 인정받고, 추천받는 일을 넓혀가는 거군요!



우리는 ‘GEO를 했다’고 성과를 말하지 않습니다.

하기 전과 한 뒤, AI의 답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드립니다.

사람의 선택을 잡던 마케팅에서,

AI의 판단을 잡는 GEO로.

AI 잡는 AI버스터, 전략집단이음 GEO.

처음이라면 3개월: 지금 AI의 답을 확인하고, 필요한 일을 실행한 뒤, 다시 물어봅니다.

계속하려면 12개월: 3개월마다 네 번 반복하며, 부족한 점을 고치고 추천받을 일을 넓혀갑니다.

※ GEO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의 줄임말입니다. 이 웹툰의 AI 답변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추천이나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